

朝鮮後期 冕服의 變遷

— 國葬都監儀軌 服玩圖說을 통한 考察 —

金 明 淑

<目 次>	
I. 序 言	III. 儀軌 服玩圖說에 나타난 冕服
II. 服玩制度에서의 冕服규정	IV. 結 論

I. 序 言

冕服에 대하여는 국내외에 걸쳐 많은 研究가 있어, 그 제도상의 실체는 거의 밝혀져 있다. 중국의 冕服에 대해서는 그 구성, 章文 등에 대한 연구가 있고¹⁾,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국으로부터의 수용과정, 冕服의 구성, 章文, 착용시기 등에 관한 상세한 고찰이 나와 있다.²⁾ 그런데 이러한 연구는 주로 제도자체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 면복제도의 변천에 따라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나, 반드시 그와 동일하게 변화되었는지, 그리하여 항상 중국과 같은 제도를 유지했을 것인지는 의문일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제도상의 설명이나 그림자체가 간략하게 특징만을 묘사하고 있어, 구체적인 제작과정에서는 現物을 참조하지 않는 한 자칫하면 뜻하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朝鮮時代의 경우, 「世宗實錄」과 「國朝五禮儀序例」에 그림과 설명이 실려있으나 그것만을 근거로 해서는 면복의 제작이 불가능할 만큼 매우 소략하다. 그러한 가운데, 朝鮮은 계속 중국으로부터 면복을 받아오면서도 국내에서도 면

복을 제작하여 왔던 것이니, 이 경우 중국에서 보내온 면복을 본 떠 만들었을 것이나, 면복의 수용이 장기간 여의치 않았거나, 단절되었을 때에는 어떠한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의문은 실물이나 그림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해결할 수 없었으나, 그에 접근할 수 있는 디딤돌을 찾을 수 있었으니 즉 규장각에 있는 國葬都監儀軌 服玩圖說에서의 冕服制度이다. 현존하는 儀軌는 모두 宣祖代이후의 것으로, 본 고의 包括範圍는 자연 조선후기로 한정된다. 또한 實錄에 나타난 바로는, 明으로부터 마지막 면복을 받은 것이 仁祖 3년(1625)이므로, 儀軌자료가 보여 주는바는 대체로 중국에서 들어온 現物을 본뜨지 못하고, 朝鮮나름으로 제작하였을 시기의 것이다.³⁾ 儀軌자료에는 冕服圖에 채색이 되어 있고, 제도설명 및 재료가 제시되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冕服의 변천과정을 전해 주고 있다.

II. 服玩制度에서의 冕服규정

服玩이란 國葬 및 禮葬, 王陵의 遷奉때에 副葬하는 服飾類로서, 조선시대 왕 및 왕세자의 장례때 쓰인 服玩品에는 冕服 一襲이 포함되어

1) 王宇清(1966), 「冕服服章之研究」, 國立歷史博物館歷史文物叢書 第一輯.
 2) 柳喜卿(1972), 「冕服에 관한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 請求論文.
 高光林(1972), 「冕服에 관한 研究」, 「仁川教育大學 論文集」 第7輯.
 金東旭(1979), 「增補 韓國服飾史研究」, 亞細亞文化社.
 3) 「肅宗實錄」肅宗 8年7月 壬戌條에 보면, 淸으로부터 冕服이 왔으나, 그 制度가 明의 것과 달랐다고 한다.

있다. 조선시대 服玩制度는 「世宗實錄」五禮儀 보이나 아주 간단하며, 「國朝五禮儀序例」에서 그 정비된 체제를 볼 수 있다. 즉 服玩圖說에 보면, 服玩品 크기는 평상시의 절반으로 만들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제의 冕服과 같은 형태임을 알 수 있으니, 그 制度는 다음과 같다.⁴⁾

① 冕: 冠은 皂毛羅로 싸고, 覆板의 겉은 皂羅로, 안은 紅羅로 한다. 전후 각 9旒이고, 旒마다 9玉 5色珠를 번갈아 꿰는다.

② 圭: 碧玉으로 하며, 주머니는 靑紵絲로 하되, 안은 纁綃로 만든다.

③ 衣: 靑綃로 만들며, 龍, 山, 火, 華蟲, 宗彝의 5章을 그린다.

④ 裳: 紅綃로 만들며, 藻, 粉米, 黼, 黻의 4章을 수 놓는다.

⑤ 中單: 白綃로 만들며, 깃에 黼⁵⁾를 수 놓고, 소매 끝에는 靑色 선(緣)을 두른다.

⑥ 蔽膝: 紅綃로 만들며, 藻, 粉米, 黼, 黻의 4章을 수 놓는다.

⑦ 佩玉: 粧花線으로 한다.

⑧ 綬: 안팎을 紅綃로 한다.

⑨ 大帶: 안팎을 白羅로 만들며, 紅色과 綠色의 선(緣)을 두른다.

⑩ 赤舄: 紅紵絲로 만든다.

⑪ 紅襪: 紅綃로 만든다.

이상의 「國朝五禮儀序例」服玩규정은 英祖대에 간행된 「國朝喪禮補編」에서 수정보완되고 있다. 즉 服玩條에, “服玩은 평상시 王이 쓰던 것을 사용하며, 새로 만들 때는 常制의 $\frac{1}{5}$ 크기로 한다. 冕服諸具는 이미 大斂條에서 말한 바와 같아 이에 圖說을 생략하며, 다른 점만을 기록한다”⁶⁾고 하여 大斂用冕服과 비교되고 있다. 그러면 「國朝喪禮補編」大斂條에 기록된 冕服은 어떠한 것이었고, 服玩用 면복과는 어떻게 달랐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① 冕: 覆版은 體와 같이 糊紙로 만든다. 版의 크기는 造禮器尺으로 너비 8寸, 길이 1尺6寸

으로 하고, 前圓後方이며, 版의 겉은 冒緞으로 안은 紅廣織으로 만든다. 體의 앞높이는 8寸5分, 뒤는 9寸5分이며 皂毛羅로 싸다. 版 밑의 玉樑과 양 옆의 玉瑱은 唐粉으로 칠하고, 前後 각 9旒는 5色명주로 만들며, 매류 朱, 白, 蒼, 黃, 黑의 순으로 5采玉 9개를 꿰는다. 장식으로 金牋紙를 잘라 冕의 좌우에 붙이고, 紅絲로 끈(纓)을 만든다.

이러한 大斂條규정과는 달리, 服玩규정은 “桐板, 玉樑, 金飾, 金簪, 垂旒玉을 갖춘다.”⁷⁾고 하여, 服玩用면복이 보다 實物과 비슷하게 제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圭: 평상시 쓰던 白玉圭를 사용한다. 길이는 周尺으로 9寸, 너비는 3寸, 뾰족한 머리(剡首)는 1寸5分으로 한다.

이 大斂규정과 달리 服玩條에서는 “평상시 쓰던 碧玉圭를 사용하며, 주머니는 안팎을 紅熟綃로 만든다.”⁸⁾고 규정하고 있다.

③ 衣: 鴉靑熟綃로 만들며, 龍, 山, 火, 華蟲, 宗彝 5章을 그린다. 옷과 소매에는 모두 선(緣)을 두른다.

④ 裳: 紅熟綃로 만들며, 前三幅·後四幅으로 하며, 前三幅의 左右에 藻, 粉米, 黼, 黻 4章을 수 놓는다. 裳 옆에는 벽(綽), 밑에는 석(緡)이라 하는 선을 두르며, 허리에 많은 주름을 잡는다. 별도로 紅熟綃를 전후쪽에 대어 접박고, 그 양쪽 끝에 끈을 단다.

⑤ 大帶: 帶의 겉은 白熟綃, 안은 紅熟綃로 한다. 허리부분은 紅熟綃로, 내려진 부분(紳)은 綠熟綃로 선을 두른다. 양 옆에 靑組를 달아 맨다.

⑥ 中單: 白熟綃로 만들며, 깃(領), 소매끝(標), 선(襖), 도련(裾)에 鴉靑熟綃를 맨다. 黻을 깃에 그려 넣는다.

⑦ 綬: 안팎과 網綬는 珮制와 같으며, 金環대신 泥金으로 칠한다. 服玩條에서는 平時 사용하던 金環을 단다고 되어 있다.⁹⁾

4) 「國朝五禮儀序例」卷五, 凶禮, 21a~22a., 服玩圖說.

5) 「國朝五禮儀序例」服玩圖說에 “用白綃纏黼領”이라 하였으나 깃에 黻文을 수놓는 것으로 생각된다.

6) 「國朝喪禮補編」, 圖說, 43a, 服玩條에 보면, “用平日所御者外新造者用常制五分之一受教. 冕服諸其已見於大斂條圖說並略之只於制樣之稍異者錄識之”라 기록되어 있다.

7) 앞 글. 服玩條에 冕은 “具桐版玉樑金飾金簪垂旒玉”이라 하였다.

8) 앞 글. 服玩條에 圭는 “用平日所御碧玉圭囊表裏紅熟綃”라 하였다.

9) 앞 글. 服玩條에 綬는 “具金環如常制”라 하였다.

⑧ 方心曲領 : 白熟絹로 만들며, 양 옆에 끈(좌측에 綠色, 우측에 紅色)을 단다. 깃 오른편 어깨에 닿는 부분에 단추를 단다.

⑨ 蔽膝 : 안팎을 紅熟絹로 만든다. 오색실을 엮어 앞三面的 둘레에 돌아가며 꿰맨다. 위에서 5寸 떨어진 아래에 藻, 粉米, 黼, 黻의 4章을 두 줄 수놓는다.

⑩ 紅襪 : 겉은 紅熟絹로, 안은 紅紵布로 만든다. 뒷면 위에 1寸 정도는 박지않고, 그 양 옆에 紅熟絹로 만든 끈을 단다.

⑪ 赤烏 : 겉은 紅熟絹, 안은 白熟絹로 하며, 純과 술은 鴉青 眞絲로 한다. 左右와 後面의 純 옆에 白絹로 만든 작은고리(小疆子)를 단다. 끈은 紅絹로 만들어 작은 고리에 꿰어서 맨다.

⑫ 珮 : 緞으로 만드는데, 겉은 赤, 靑, 玄, 纁, 綠의 5色으로 교직하고, 안은 紅熟絹로 한다. 5色絲의 나머지는 엮어, 網綬로 하여 내리운다. 珮玉 및 銀鉤는 실제로 달지 않고, 唐粉으로 珮를, 泥金으로 鉤를 그린다.

그러나 服玩條에서는 평상시 착용하던 것을 쓴다¹⁰⁾고 되어 있다.¹¹⁾

이상으로 조선초기의 「國朝五禮儀序例」와 후기의 「國朝喪禮補編」에서의 服玩制度에 나타난 면복규정을 알아 보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服玩品은 조선초기에는 실물의 1/2크기로, 후기에는 평소 사용하던 것으로 하거나, 새로 만들 경우 실물의 1/5크기로 제작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服玩으로 쓰인 면복이 실제와 그 기본 형태에 차이가 없음이 확인된다. 이에 역대의 儀軌 服玩圖說에 나타난 冕服은 어떠한 형태 및 재료로 제작되었는지, 또한 服玩규정에 일치하고 있는지등을 품목별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Ⅲ. 儀軌 服玩圖說에 나타난 冕服

服玩冕服의 실체를 보여주는 服玩圖說은 규장

각 소장의 國葬都監儀軌(12종)를 중심으로, 禮葬(2종) 및 遷陵都監儀軌(4종)등 18종의 儀軌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冕服諸具의 고찰 순서는 「國朝五禮儀序例」순서에 따르고자 한다. 孝宗까지의 의례에는 冕, 圭, 衣, 裳, 中單, 蔽膝, 佩玉, 綬, 大帶, 烏의 순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顯宗대의 孝宗遷陵때부터는 이에 方心曲領이 포함되면서 「國朝五禮儀序例」순과 같게 바뀌고 있다. 또한 「孝宗國葬都監儀軌」부터는 색채가 나타나 있어 주목되는데, 이러한 服玩圖는 正祖국장때까지 보이고, 그 이후는 설명만 있을 뿐 그림은 없다.

1. 圭 : 太宗 3年, 明에서 보내온 圭는 大紅素紵絲로 만든 겹주머니에 넣어진 玉圭였다고 하나¹²⁾, 그 색에 대한 언급은 기록에 없다. 또한 「大明會典」의 면복제도에서도 圭의 색에 대한 설명이 없다.¹³⁾ 그러나 明에서 받은 면복을 근거로 정한 「國朝五禮儀序例」祭服圖說에는 靑玉으로 만든다.¹⁴⁾고 하였으니, 수용된 明制역시 靑玉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序例 服玩圖說에서는 碧玉으로 한다고 하였으니, 조선초기에는 祭服用 圭와 服玩用 圭가 색으로 구별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宣祖國葬부터 孝宗國葬까지의 儀軌 服玩圖說에 보면 圭는 “靑玉爲之, 三房造來”라 하여, 「國朝五禮儀序例」祭服규정과 같아 服玩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孝宗遷陵때에는 舊陵에서 파낸 白玉圭를 服玩으로 쓴다고¹⁵⁾ 하여, 靑玉圭를 썼다는 國葬기록과 서로 모순되고 있는데,¹⁶⁾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앞서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白玉圭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후 肅宗國葬부터 孝章世子禮葬때까지의 의례기록에는 평상시 사용하던 圭(왕은 白玉圭, 왕세자는 靑玉圭)를 사용하였으며,¹⁷⁾ 「英祖國葬都監儀軌」부터에는 앞서와 服玩 규정이 달라지고 있으니 즉 “圭부터 烏까지의

10) 앞 글. 服玩條에 珮는 “用平日所御者”라 하였다.

11) 이상의 「國朝喪禮補編」圖說에는 설명과 함께 그림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후에 언급될 英祖 및 「正祖 國葬都監儀軌」 服玩圖說의 그림과 같아, 여기서는 생략하였다.

12) 「太宗實錄」太宗 3年 10月 辛未條.

13) 「大明會典」卷60, 禮部18, 冠服條.

14) 「國朝五禮儀序例」卷1, 吉禮, 祭服圖說.

15) 「孝宗遷陵都監儀軌」 服玩圖說에 보면, “舊陵壙中排設玉圭以乃用”이라 하였다.

16) 「顯宗實錄」, 顯宗 14년 9월 기록에 보면, 乙亥國葬(: 孝宗國葬)때 白玉圭를 사용하였다고 함.

17) 「肅宗國葬都監儀軌」 服玩圖說에 圭는 “靑玉爲之 三房造作, 今番則以大妃殿傳教以常時御用白玉圭用之”라 하였고, 孝章世子에 장때는 “今番以常時進用靑玉圭用之”라 기록되어 있다.

모든 服玩品은 평상시 사용하던 것으로 쓴다. 새로 만들때는 常制의 1/5크기로 한다.”¹⁸⁾고 하였고, 이어서 “圭는 碧玉으로 만들며, 주머니는 안팎을 紅熟絹로 한다.”¹⁹⁾고 하였으니, 이는「國朝喪禮補編」服玩 규정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정리해 볼 때, 宣祖국장부터 孝宗국장까지는 服玩冕服의 圭를 靑玉圭로 썼고, 그 이후 孝章世子예장때까지는 평시 쓰던 白玉圭를, 英祖國葬부터는 평시 쓰던 白玉·圭이거나, 碧玉圭를 썼던 것이다.

2. 冕

宣祖國葬부터 孝宗國葬까지의 儀軌 服玩圖說에 기록된 冕의 제도를 보면, “冠은 皂毛羅로 싸고, 覆板의 겉은 皂羅로, 안은 紅羅로 만든다. 前後各 9旒이고, 각 旒에는 9玉5色珠를 서로 사이에 꿰는다.”²⁰⁾고 하였으니, 이는「國朝五禮儀序例」服玩규정과 같다. 그리고 宣祖국장부터 孝章世子禮葬때까지의 의례에는 다음과 같은 재료가 기록되어 있으니, “金 3錢, 銀 3兩, 黑段半骨 1尺5寸, 水銀 1兩, 壯紙 5張, 三色玉珠, 皂羅 8寸, 砒霜 7錢, 上板 梧桐木”이다. 한편 孝宗遷陵때는 더욱 상세한 재료가 기록되어 있어 주목되는데, 즉 “毛羅 1尺5寸, 魚膠 2兩, 墨一片 每漆 5夕, 梧桐板 長 1尺 廣 6寸, 表裏 冒段半骨 1尺5寸, 內裏 大紅廣的半骨 1尺5寸, 冕旒 五色珠 162介, 貫珠次 五色絲 一錢 絃纒 白玉珠 4介, 粧飾次 十品銀 3兩, 鍍黃金 3錢, 水銀 1兩5錢, 礪砂 4分, 砒礪 2錢, 纓子童多繪次 大紅絲 2錢, 金錢紙半張, 白玉樑 1介, 舉月伊次 銀鐵絲 6寸”이다. 현종때 제작된 이 의례의 재료는 영조대의「尙方定例」에 기록된 冕의 재료보다 상세하고도 정확하다.²¹⁾ 景宗국장때는 평상시 쓰던 白玉樑과 絃纒 5色珠를 쓴다고 하였고, 孝章世子の 禮葬때는 평상시의 靑玉樑과 靑色絃纒珠를 쓴다고 하였다. 그리고 英祖국장부터 哲宗국장까지의 의례에 “冕은 桐板, 玉樑, 金

飾, 金簪, 垂旒, 玉瑱을 갖춘다”고 하여 「國朝喪禮補編」의 규정과도 같다. 그런데 앞서와는 달리 冕의 앞을 등글게 그리고 있음이 주목된다. 「大明會典」에 보면 冕을 前圓後方이라 규정하였으나, 冕圖는 이와 다르며, 조선에 수용된 冕의 형태 역시 「世宗實錄」冠冕圖에 前圓으로 그려 있지 않다. 또 明代 유물인 九旒冕冠 역시 앞이 모나 있으니²²⁾, 中國 明代 冕의 前圓後方규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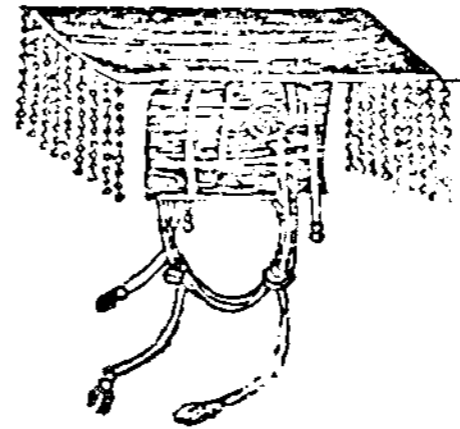


圖 1. 國朝五禮儀序例 冕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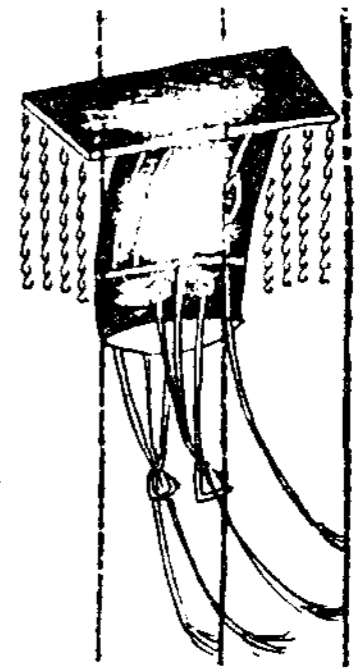


圖 2. 景宗國葬都監 儀軌 冕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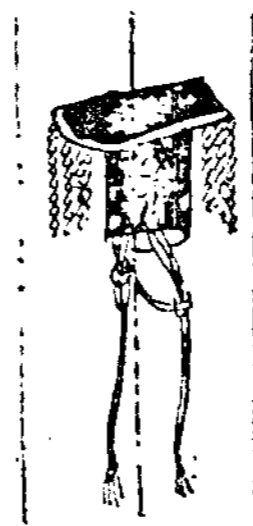


圖 3. 英祖國葬都監 儀軌 冕圖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추측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國朝五禮儀序例」에서는 冕을 前圓後方으로 그리고 있으나 (圖 1), 실제로는 앞을 모지게 만들었다가 (圖 2) 英祖대에 비로소 前圓後方의 형태로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된다(圖 3).

3. 衣

「大明會典」에 규정된 明 친왕면복은 靑衣였으나, 「國朝五禮儀序例」祭服用 冕服은 玄衣로,

18) 「英祖國葬都監儀軌」의 服玩설명에 보면, “自圭至赤烏依各年曆錄 自尙方造來 尺數用常制五分之一”이라 하였다.
 19) 앞 글에 圭는 “碧玉爲之 有囊 表裏紅熟絹”라 기록되어 있다.
 20) 「宣朝國葬都監儀軌」服玩圖說에 冕은 “冠裏皂毛羅覆板外皂羅內紅羅前後各九旒旒各九玉五色珠相間”이라 하였다.
 21) 이 「孝宗遷陵都監儀軌」에는 五色珠 162개가 기록되어 전후 18旒에 9개씩 꿰면 딱 들어맞는데, 「尙方定例」에서는 “五色珠 各 26개”라고 하여 26개×5=130개이니, 이것으로는 9旒9玉 규정에 부족한 것이다.
 22) 金東旭(1982), “ 주변 국가의 服飾”, 「韓國의 服飾」, 韓國文化財保護協會, p.104. 참조.

服玩用冕服은 靑衣로 규정하고 있다. 宣祖국장부터 孝章世子에장때까지 사용된 服玩用 冕服의 재료는 “靑絹 9尺, 白絹 4尺8寸”이었으니, 이는 「國朝五禮儀序例」服玩규정과 같은 靑衣였다.²³⁾ 그 후 英祖국장부터는 衣를 鴉靑熟絹로 만든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國朝喪禮補編」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이는 「尙方定例」의 면복재료와도 같으니, 英祖부터 哲宗代까지는 조선초기와 달리 용도에 관계없이 冕服은 모두 鴉靑色으로 규정됨을 알 수 있다.²⁴⁾ 儀軌 服玩圖를 통해 章文의 色을 보면, 龍은 주로 黃色과 赤色, 火는 赤色, 華蟲은 靑, 綠, 赤色으로, 宗彝는 黃色 혹은 綠色, 山은 綠色계통으로 그려져 있다.²⁵⁾ 다음은 衣의 길이에 대해 보겠다. 조선에 수용된 明 永樂禮制 冕服은 衣가 길었고, 「國朝五禮儀序例」祭服圖說에서도 衣를 길게 그리고 있다. 그런데 明 嘉靖 8年에 皇帝冕服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衣가 裳의 章文을 덮지 않도록 하였으니²⁶⁾, 이 규정은 조선에 영향을 주고 있다. 즉 英祖 19년에 衣의 제도를 고쳐 길이를 줄이도록 명하였던 것이다.²⁷⁾ 이로 볼때, 衣는 英祖代에 짧게 제조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나, 이 규정이 계속 지켜진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창덕궁 소장 익종 효명세자의 어진에 면복의 衣가 길게 그려져 있고 裳이 衣 밑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는 純宗의 어진에서도 마찬가지이니²⁸⁾, 英祖국장이후 다시 衣가 길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4. 裳

조선이 받은 明制 冕服의 裳은 纁色으로, 藻·粉米·黼·黻의 4章文을 짜 넣고, 전 3幅·후 4幅이 서로 이어져 있지 않으며, 허리(共腰)부분에 주름(辟積)이 많고, 纁色의 褙와 裼이라는 선을 대는 것이었다.²⁹⁾ 「國朝五禮儀序例」祭服

圖說에서의 裳은 明의 규정과 비교할 때 章文을 수놓는다는 점이 다르나, 대체로 형태가 같다.(圖 4) 그러나 이상의 裳圖에는 허리에 주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그 실체를 알 수 없으며 허리말기 및 끈의 색, 章文의 色등을 파악할 수 없었으나, 이러한 미비점을 역대 의복보완도설을 통해 보완할 수 있었다 우선 裳의 형태 변화를 살펴 보면, 裳은 宣祖이후 哲宗국장까지 4단계에 걸쳐 형태가 변화하였다. 제 1 단계는 宣祖국장이후 仁祖국장까지인데, 이 때는 「國朝五禮儀序例」의 裳圖와 큰 형태 차이가 없으나 後 4幅아닌 後 5幅으로 그려져 있다.(圖 5) 제 2 단계는 孝宗국장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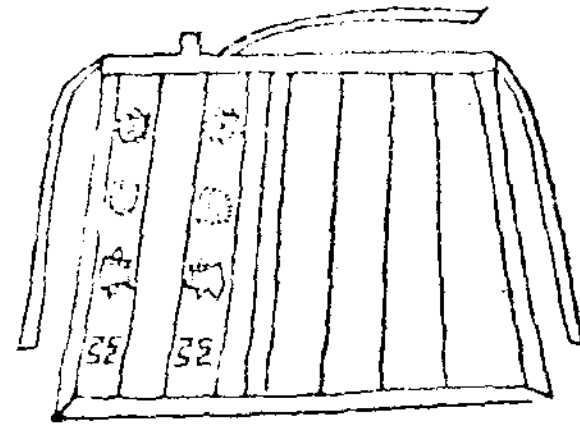


圖 4. 國朝五禮儀序例 裳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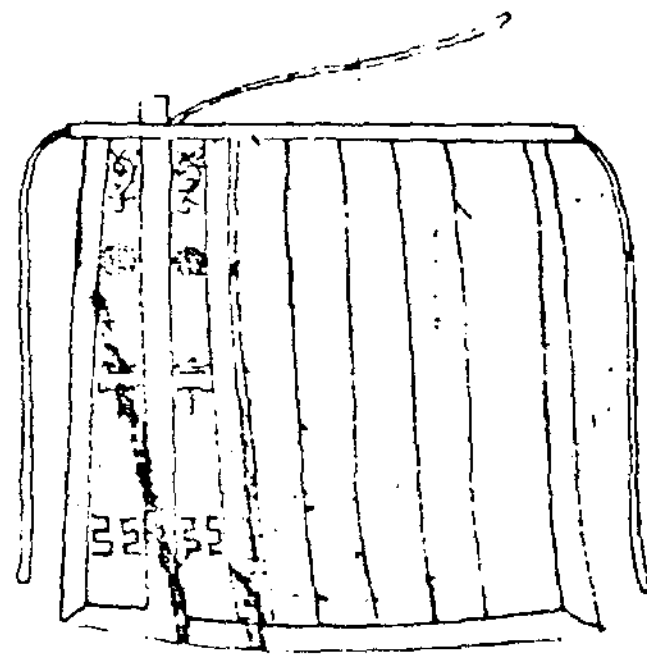


圖 5. 宣祖國葬都監儀軌 裳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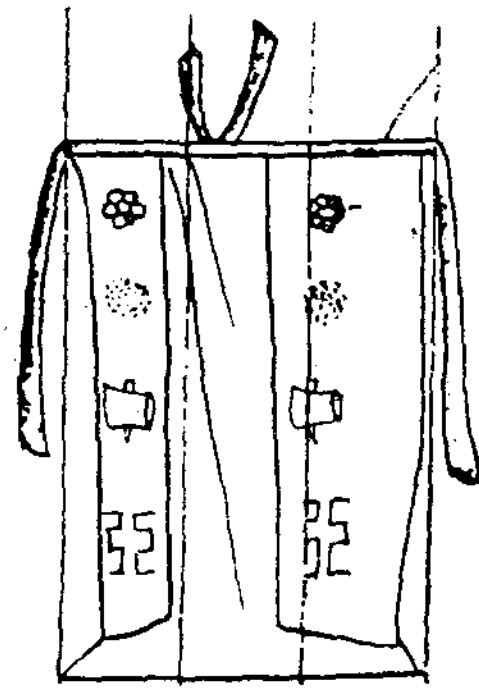


圖 6. 顯宗國葬都監儀軌 裳圖

23) 단, 昭顯世子에장때는 靑絹아닌 藍絹로, 孝宗遷陵때는 鴉靑熟絹로 기록되어 있다.

24) 「英祖實錄」, 英祖 5년 9월 辛卯條에 보면, 大喪의 禫祭때에 黑絹으로 만든 袞服을 입었다고 하였으니, 鴉靑色의 재료를 사용토록 한 제 규정과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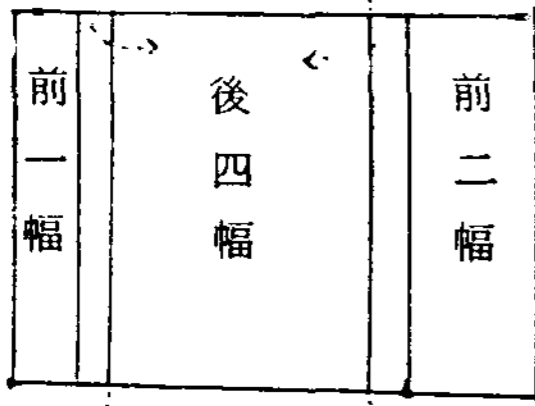
25) 이는 高宗의 유물로 전해지는 九章服의 章文色과 큰 차이없는 것이라 하겠으니, 文化財管理局(1981), 「朝鮮時代 宮中服飾」 p.23에 보면, “龍은 金色, 紅色, 山은 翡翠色, 金色, 火는 紅色, 華蟲은 靑, 紅, 藍色, 宗彝는 靑色으로 채색되어 있다”고 한다.

26) 「大明會典」, 卷60, 禮部18, 冠服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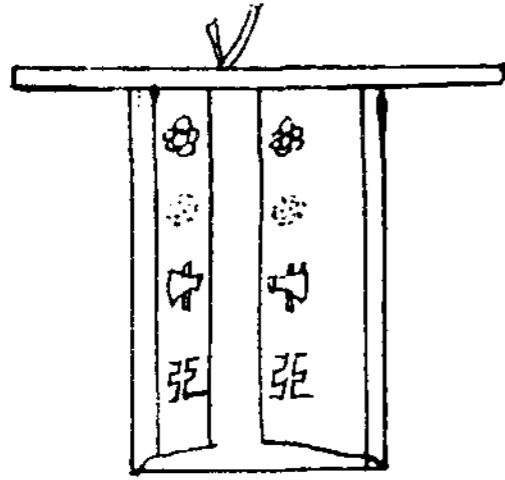
27) 「英祖實錄」, 英祖 26년 4월 丁酉條.

28) 李覺鍾(1927), 「純宗實紀」, 京城.

29) 「大明會典」, 卷60, 禮部18, 冠服條.



〈완성前〉



〈완성後〉 圖7

터 顯宗국장때까지로 前三幅·後四幅이 폭마다 갈라지지 않고, 서로 연하여 장막(帷)과 같으며 전후폭을 접쳐놓은 것처럼 보이는데(圖 6) 이를 다음과 같이 도해해 보자 한다.(圖 7)

제 3 단계는 肅宗국장부터 孝章世子禮葬때까지로 사용된 裳의 형태는 허리에 위로 달린 끈이 없어지고, 章文이 있는 前幅이 양 옆으로 균등하게 나뉘어 있고 좌우가

대칭되고 있는 것이다.(圖 8)

한편 宣祖국장부터 孝章세자에장까지의 의례기록에 보면 裳의 재료가 “紅絹4尺, 縵靑絹2尺”으로 되어있어 바탕은 紅色, 縵은 靑色으로 하였던 것이니, 그림의 色을 통해 縵이 허리말기 및 끈 그리고 위에 걸어매게 된 끈임을 알 수 있다.³⁰⁾ (圖 9) 이로 볼 때, 「國朝五禮儀序例」 제복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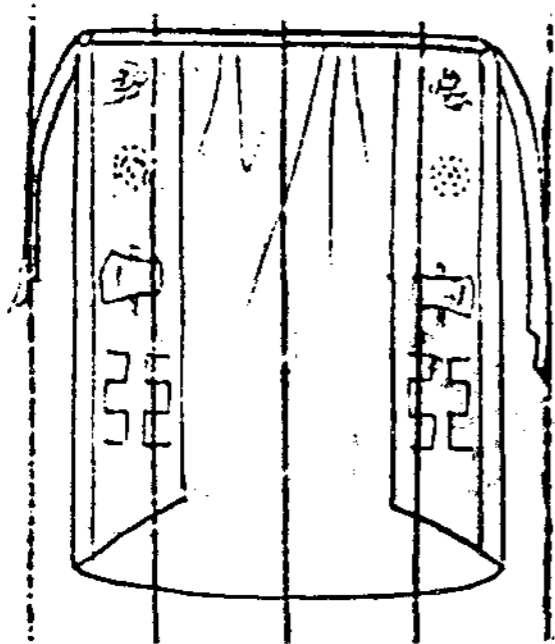


圖8. 肅宗國葬都監儀軌 裳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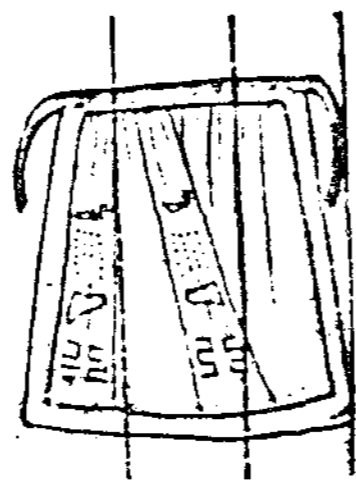


圖9. 英祖國葬都監 儀軌 裳圖

의 裳도 縵이 靑色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 4 단계는 英祖국장부터 哲宗국장때까지로 裳의 제도는 「國朝喪禮補編」의 규정에 따라, 허리에

많은 주름을 잡고, 허리말기 및 끈은 바탕색과 같게 하였다. 한편 裳에 나타난 章文의 色을 보면, 藻는 주로 靑色이나 綠色으로, 粉米는 흰바탕에 무수한 검은 점으로, 黼의 도끼몸체는 靑色, 도끼자루 및 날은 白色으로, 黻은 黑線으로 표현하고 있다.

5. 大帶

明 永樂禮制 親王冕服의 大帶는 “겉은 희고, 안은 붉으며, 허리(腰)와 늘어뜨린 부분(垂)에 모두 선을 두르는데, 위는 붉게, 아래는 綠色으로 낸다. 그리고 靑組로 묶는다”고 규정하고 있다.³¹⁾ 「國朝五禮儀序例」 祭服圖說에서는 緋色과 白色을 섞어 꿰맸다고만 기록하고 있어, 緣과 組의 色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또한 序例 服玩圖說에서는 안팎 모두 白羅로 하고, 紅色과 綠色의 선을 두른다고 하여 祭服用 大帶와 다른 色으로 규정되어 있다. 역대 儀軌 服玩圖說을 보면, 宣祖국장부터 孝章세자에장까지 사용된 服玩用 大帶의 재료는 “白羅 長三尺半骨, 多紅段 五寸”으로 되어 있고, 孝宗국장부터는 허리(腰)는 紅色, 紳과 組는 白色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明 제도나 「國朝五禮儀序例」 규정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大帶가 규정대로 제작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增補文獻備考」에 의하면, 肅宗 39년에 冠服규정을 개정할 때, 비로소 大帶의 규정을 겉은 희고 안은 붉게 하여 바로 잡았다고 한다.³²⁾ 그런데 肅宗국장때 사용된 大帶는 전과 다름없이 겉이 붉게 그려져 있으니, 이는 의문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英祖국장부터 哲宗국장까지는 「國朝喪禮補編」의 규정에 따라 大帶의 겉을 白熟絹로, 안은 紅熟絹로 만들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³³⁾, 실제 儀軌의 그림에는 여전히 겉을 붉게 채색하고 있으니, 혹시 大帶의 허리부분을 뒤로 넘겨 착용하던 것이 아닌가 한다.

6. 中單

「國朝五禮儀序例」 제복도설에서의 中單은 白縵으로 만들며, 깃(領), 소매끝(標), 선(襖), 도련(裾)을 靑色으로 하고, 깃에 11개의 黻文을

30) ‘縵’字는 字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 그림을 통해 그 지칭하는 부분을 알 수 있었다.

31) 註 29) 참조.

32) 「增補文獻備考」 제79권, 章服條, 衣服總論.

33) 「英祖國葬都監儀軌」 服玩圖說에 보면, 大帶는 “表用白熟絹裏紅熟絹線緣紅熟絹紳緣綠熟絹維結處兩傍安靑組繫”라 하였다.

그리는 것이었는데, 이는 序例 服玩圖說의 규정과도 같았다. 역대 儀軌 服玩圖說을 보면 宣祖 국장이후 孝宗 국장까지 기록된 재료는 白絹 20尺, 衿靑絹 3尺3寸으로, 衿은 선두를 부분임을 알 수 있다. 顯宗 국장부터 孝章世子예장까지는 靑絹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그림에는 靑緣을 그리고 있어, 이때에도 靑絹는 소용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효종천릉때와 영조국장이후에는 靑絹대신 鴉靑熟絹로 기록되어 있다³⁴⁾. 한편 英祖 국장부터는 黻文을 泥金으로 그린다고 하였는데, 이는 哲宗 국장까지 계속된다. 현존하는 傳 高宗 유물인 中單은 衣보다 길고, 靑色이며, 黑色 襪을 두르고, 黻文을 금박으로 찍었다고 하니³⁵⁾, 철종 국장이후 中單의 제조규정은 다시 바뀐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英親王 의대 받기에 보이는 기록³⁶⁾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冕服 藍熟甲紗 } 一作
 너작(內作)藍甲紗 }

이라고 되어 있어, 이 너작을 中單으로 볼 경우 哲宗 국장이후 中單을 靑色계통으로 제작하였을 것으로 본다.

7. 佩玉

明 親王冕服의 佩玉제도를 보면, 珩이하의 모든 佩玉에 雲龍文을 장식하고, 위에 金鉤를 달았으며, 이에 赤, 白, 縹, 綠의 四采로 짠 小綬가 있다고 하였다. 小綬는 佩玉의 밑받침에 쓰였던 것으로 생각되며, 「國朝五禮儀序例」 祭服圖說에는 雲龍文장식과 小綬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형태는 明制와 같다. 역대 의례 服玩圖說을 살펴보면 英祖 국장을 중심으로 佩玉의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 즉 선조국장부터의 의례에는 佩玉이 그려져 있고, 단지 “三房造來”라고만 쓰여 있다. 그 형태는 「國朝五禮儀序例」 제복도설에서의 佩玉圖와 같으며, 「孝宗國葬都監儀軌」부터, 上部는 綠色, 下部는 紅色으로 칠해져 있다. 숙종 국장때에 大妃의 분부에 따라 평상시 王이 사용

하던 佩玉을 쓴다고 기록하고 있으며³⁷⁾(圖10) 이후 효장세자예장때까지는 평상시의 佩玉을 服玩用으로 쓰고 있다. 또한 그 형태는 「國朝五禮儀序例」 佩玉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英祖 국장부터는 佩玉규정이 달라졌으니, 바탕의 걸은 5색 교직하고 안은 붉게하며, 銀鉤와 珮玉을 달았으니 이는 「國朝喪禮補編」의 服玩규정 아닌 大歛면 복규정을 따른 것이었고(圖 11), 이 기록은 哲宗 국장까지 동일하였다.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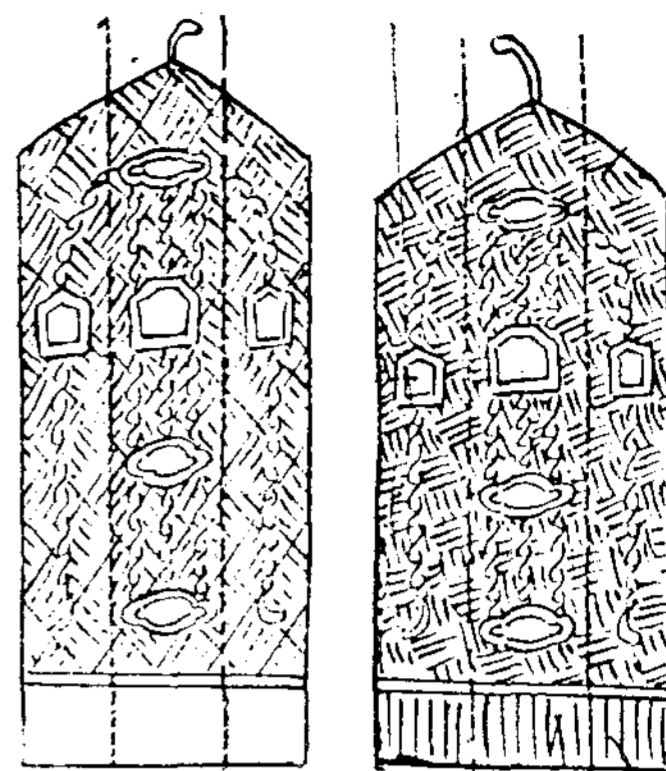


圖10. 肅宗國葬都監儀軌 佩玉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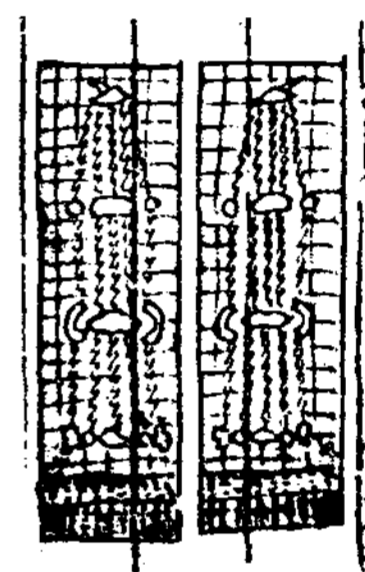


圖11. 英祖國葬都監儀軌 佩玉圖

8. 綬

明 永樂禮制 親王冕服의 綬는 大綬와 小綬로 나뉘며, 2개의 玉環을 다는 것으로, 纁色바탕이었다. 「國朝五禮儀序例」 祭服圖說의 綬는 바탕을 紅花錦으로 하였고, 形態는 수용된 明의 것과 같으나 玉環아닌 金環을 다는 점이 달랐다. 또한 序例 服玩圖說에도 안팎을 紅絹로 만든다고 기록되어 있다. 의례 服玩圖說을 살펴 보면, 英祖 국장을 전후로 해서 綬형태에 변화가 보이고 있다. 즉 宣祖 국장부터 孝章世子예장까지 服玩으로 쓰인 綬는(圖 12) 「國朝五禮儀序例」 祭服圖說에서의 형태와 같고, 그 재료는 紅絹二尺

34) 「孝宗遷陵都監儀軌」에 나타난 中單의 재료는 “白熟絹 10尺, 衿次貼邊并 鴉靑熟絹 3尺”이다.

35) 註 25)의 책 p.23 참조.

36) 金用淑(1963), “궁중件記의 研究”, 「郷土서울」, No.18, 서울市.

37) 「肅宗國葬都監儀軌」 服玩圖說에 보면, 佩玉은 “今番則 以大妃殿傳教 以常時御用佩玉用之”라 하고 있다.

38) 「英祖國葬都監儀軌」에 佩玉은 “用緞作本表五色交織緞裏紅熟絹仍以五色餘絲結網緞垂之去佩玉銀鉤以唐粉畫佩泥金畫鉤”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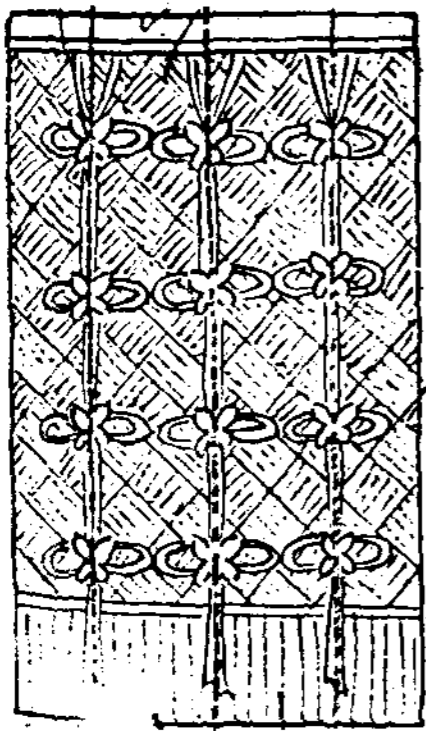


圖12. 肅宗國葬都監 儀軌 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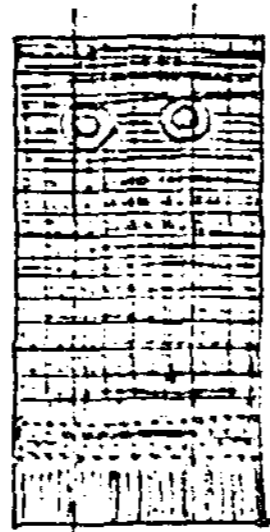


圖13. 正祖國葬都監儀軌 綬圖

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英祖國장부터는 규정이 바뀌어 綬의 안팎과 網綬는 珮制와 같게 하고, 평상시와 같이 金環을 단다고 하였으니(圖 13), 이는 「國朝喪禮補編」服玩규정과 같은 것이었다. 「增補文獻備考」에 의하면, 英祖 22년에 紋綬을 금하고, 赤, 靑, 玄, 纁, 綠色의 綬을 짜서 綬를 만들게 하였다고³⁹⁾ 하니, 이로서 服玩규정의 綬 및 佩의 바탕색인 五色을 알 수 있는 것이다.

9. 方心曲領

원래 明 冕服制度에는 方心曲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國朝五禮儀序例」服玩圖說에도 이것이 없으나, 祭服圖說에서는 포함시키고 있으니, 그 제도는 白羅로 만들며 좌측에 綠色, 우측에 紅色의 끈(纓)을 달도록 되어 있다.

儀軌 服玩圖說을 살펴보면, 3단계로 그 변천 과정을 구분지을 수 있다. 즉 선조國장부터 효종國장까지는 服玩品에 方心曲領을 포함시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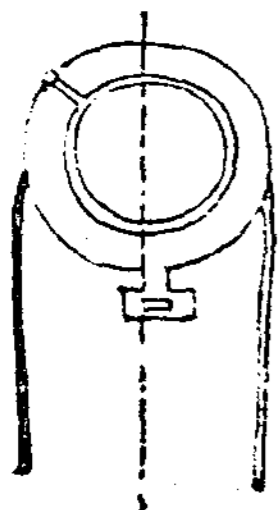


圖15. 正祖國葬都監 儀軌 方心曲領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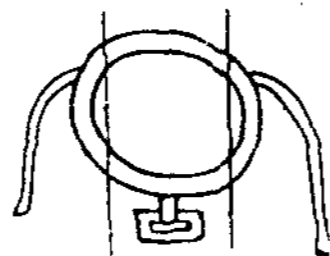


圖14. 孝宗遷陵都監儀軌 方心曲領圖

지 않고 있다. 그 뒤 효종천릉때 부터 方心이란 명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圖 14), 이때의 형태는 「國朝五禮儀序例」方心曲領과 같으나 끈(纓)은 序例 규정과는 달리 모두 白色이었다.⁴⁰⁾ 그러다가 英祖國장부터 哲宗國장까지의 의례기록에 보면 “白熟絹로 만들고, 좌측에 綠色, 우측에 紅色 끈을 달며, 깃(領)의 오른쪽 어깨에 닿는 곳에 단추를 단다”고 하였으니(圖 15) 이는 「國朝喪禮補編」의 면복규정과 같은 것이었다.

10. 蔽膝

朝鮮時代に 받은 明의 蔽膝을 裳色과 같은 纁色이었고, 纁色 선(緣)을 두른 것으로, 위에 玉鉤 들을 달고, 오색실며(紉)를 달았으며, 藻·粉米·黼·黻의 4章文을 각 둘씩 짜 넣은 것이었다. 「國朝五禮儀序例」 제복도설에 보이는 폐슬의 형태는 明制와 같으나, 章文을 수 놓는 것이었고, 服玩圖說에는 紅絹로 만든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선조國장부터 철종國장까지의 역대의 폐완도설을 살펴보면, 폐슬의 제도 및 형태는 3단계로 구분지어진다. 즉 宣祖國장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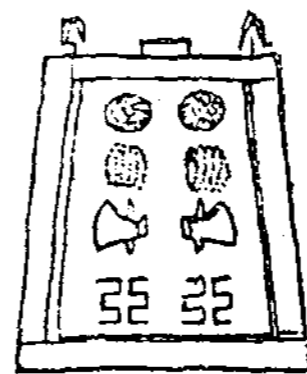


圖16. 國朝五禮儀 序例 蔽膝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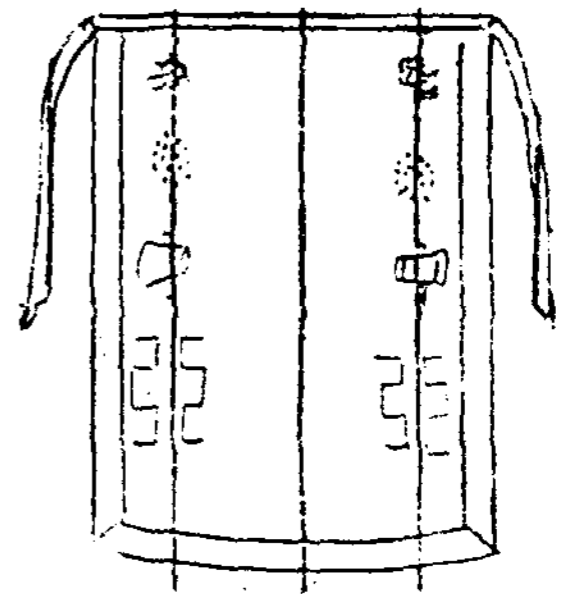


圖17. 肅宗國葬都監儀軌 蔽膝圖

仁祖國장까지 服玩으로 사용된 폐슬의 형태는 「國朝五禮儀序例」와 같다.(圖 16) 그후 孝宗國장부터 孝章世子에장까지의 폐슬에는 鉤가 없으며, 대신 양 옆에 靑色 끈이 달려 있으니(圖 17), 이는 明의 冕服이 인조代이후 더 이상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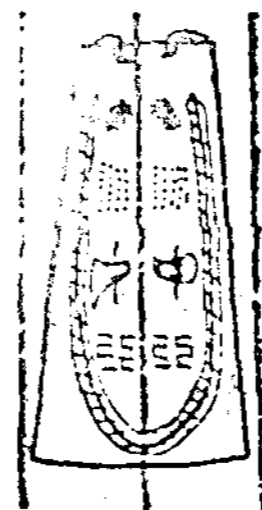


圖18. 英祖國葬都監 儀軌蔽膝圖

39) 註 32)와 동일.

40) 이 때 쓰인 재료는 의례에 白生絹 1尺5寸이라 하였으며, 그림도 白色으로 나타나 있다.

용되지 않게 되자 점차 우리나라 양식으로 변화해가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후 英祖國장부터는 다시 끈을 없애고 鈎를 달았으니 (圖 18) 의례의 기록을 보면, “안팎을 紅熟絹로 만들고, 앞의 三面에 5色交絲로 만든 실머를 둘러 꿰매며, 위에서 5寸 떨어진 아래 四章文을 두 줄로 수 놓는다”는 것이다. 이는 「國朝五禮儀序例」 형태로 다시 돌아간 것이나, 옆과 아래에 선(緣)을 내지 않은 점이 다르다.

다음은 章文에 관한 것으로, 그 색은 앞서 언급한 裳의 章文色과 일치하며, 시대에 따른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孝宗遷陵都監儀軌」에는 章文을 그려넣는 재료가 기록되어 있어⁴¹⁾, 수 놓도록 한 「國朝五禮儀序例」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된다.

11. 紅襪

明 永樂禮制의 襪은 赤色이었고, 「國朝五禮儀序例」 제복도설에서는 緋色 段으로 겹을, 緋色 絹로 안을 만든다고 하였으며, 服玩圖說에서는 紅絹로 규정하고 있다. 儀軌 服玩圖說을 살펴 보면 襪의 형태는 대략 3단계로 나뉘어져 변화하고 있다. 즉 宣祖國장부터 孝宗國장까지 쓰여진 襪은 「國朝五禮儀序例」에서의 형태와 같이, 버선목을 중심으로 상하 양분되고, 양 옆에 끈



圖19. 國朝五禮儀序例 襪圖



圖20. 孝宗寧陵遷陵都監儀軌 襪圖

이 1개씩 달려 있다. (圖 19) 재료는 孝章世子에 장까지 동일하게 紅絹2尺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바탕은 紅色으로, 끈은 白色으로 채색되어 있다. 그런데 孝宗遷陵때부터 孝章世子에 장까지의 襪에는 앞과 달리 끈 2개가 모두 한 쪽에 달려 있다. (圖 20) 그러다가 英祖國장부터는 「國朝喪禮補編」 면복규정에 따라 겹은 紅熟絹, 안은 紅苧布로 만들고, 뒷부분의 위를 1寸정도 더서 그 양쪽에 바탕색과 같은 끈을 달았던 것이



圖21. 正祖國葬都監儀軌 襪圖

다. 또한 상하로 구분되던 것이 좌우로 구분된 것으로 보여, 제조방법, 끈의 색 및 다는 위치등에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圖 21)

12. 赤烏

明 永樂 3년에 정한 친왕면복의 烏은 赤色으로, 黑色 絢와 선(純)을 장식하였고, 신코에 검은 장식을 하는 것이었다. 「國朝五禮儀序例」 제복도설에는 “겹을 緋段으로, 안은 白絹으로 만든다”고 하였고 服玩圖說에는 “紅紵絲로 만든다”고만 하여, 純이나 술 장식등의 색을 알 수 없다. 儀軌 服玩圖說에 나타난 烏의 제도 및 형태는 英祖國장을 中心으로 양분되고 있다. 즉 宣祖國장부터 孝章世子에 장까지 服玩으로 쓰인 烏은 「國朝五禮儀序例」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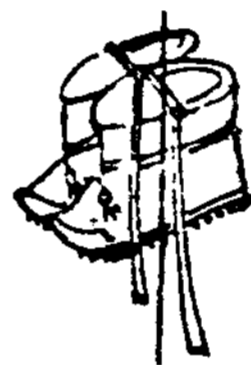


圖23. 正祖國葬都監儀軌 烏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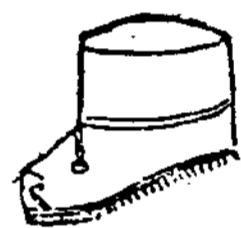


圖22. 國朝五禮儀序例 烏圖

의 형태와 같은데 (圖 22), 그 재료는 紅絹 4尺, 白紵 1尺1寸, 白綾 8寸, 白正布 4尺5寸, 厚紙 1張, 靑眞絲 8錢, 紅眞絲 1兩5錢, 綠眞絲 2兩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英祖國장부터 哲宗國장까지는 그 규정이 바뀌어 “겹은 紅熟絹, 안은 白熟絹로 만들고 純과 술은 鴉靑眞絲로 한다. 그리고 좌우와 뒤에 白絹로 만든 작은 고리(小彙子)를 달아, 紅絹로 만든 끈을 여기에 꿰맨다”고 하였다. (圖 23)

IV. 結 論

이상 宣祖國장부터 哲宗國장까지의 역대 國葬 및 禮葬, 遷陵都監儀軌에 포함된 服玩圖說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후기 면복의 변천과정을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의 면복제도는 중국의 제도와 밀접한 연결을 가진 것이었으나, 반드시 서로

41) 「孝宗遷陵都監儀軌」에 보면 泥金, 泥銀등, 蔽膝의 ‘畫章次’가 기록되어 있다.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國朝五禮儀序例」의 면복규정 역시 明의 제도를 기초로 하고 있으나, 衣色, 材料, 章文의 표현법 등에서 조선자체의 제도를 정립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제도와는 달리 方心曲領을 면복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國朝五禮儀序例」 규정은 소략하여, 실제 면복을 제작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이었으니, 明에서 보내온 실물이나 도형을 기초로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明으로부터 면복수용이 단절된 후에 면복을 어떠한 재료와 형태로 제작하였는지 알 수 없었다. 이러한 의문해결에 다소 접근케 하는 자료가 바로 본문에서 고찰한 儀軌 服玩圖說이었다. 服玩用 冕服은 평상시 착용하던 것과 같은 형태로 만들도록 규정된 것이었으니, 유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면복의 실재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⁴²⁾ 본문에서

고찰한 바를 정리하면 대략 다음의 몇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宣祖국장부터 哲宗국장까지의 服玩 면복규정은 英祖 34년의 「國朝喪禮補編」 간행을 중심으로 하여, 그 이전에는 「國朝五禮儀序例」 규정을, 그 후에는 「國朝喪禮補編」 규정을 따르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엄격히 지켜지지 않은 점도 있다.

둘째, 조선시대 면복은 明에서 수용된 면복에 의거하여 제조되었을 것으로 보나,⁴³⁾ 明으로부터 수용이 단절된 이후, 孝宗年間부터 그 형태가 부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셋째, 英祖때 마련된 「國朝喪禮補編」 면복규정은 「國朝五禮儀序例」 및 明의 면복제도를 참작한 것으로, 孝宗국장이후 國俗化되어 오던 우리나라 면복제도를 정착시킨 것이라 하겠다.

參 考 文 獻

1. 高光林(1972), "冕服에 관한 研究" 「仁川教育大學論文集」, 第七輯 第1~2號, pp. 151~219.
2. 「高麗史」
3. 「舊唐書」
4. 「國朝五禮儀序例」 서울大學敎 奎章閣영인본, 景文社
5. 「國朝喪禮補編」.
6. 권오돈, 이재호(譯)(1973), 「세종장현대왕실록」, 卷20. 21. 서울·세종대왕 기념사업회.
7. 김익현, 송정희, 양대연(共譯)(1981), 「국역증보문헌비고」, 禮考4, 서울:세종대왕 기념사업회.
8. 金東旭(1979), 「增補 韓國服飾史 研究」, 서울:亞細亞文化社.
9. 「大明集禮」
10. 「大明會典」
11. 「大韓禮典」, 掌禮院(朝鮮)編, 寫本. 光武元年以後寫,
12. 「明史」
13.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1981), 「朝鮮時代 宮中服飾」.
14. 李民樹(譯) 「三國遺史」, 世界思想教養全集 續12. 乙酉文化社
15. 「三才圖會」.
16. 「尙方定例」
17. 徐 兢, 「高麗圖經」, 梨花史學資料叢書, 第2輯.
18. 孫敬子, 金英淑(共編)(1982), 「韓國服飾史 資料選集」, 朝鮮編 I. II. III, 서울:敎文社.
19. 「宋史」
20. 沈從文(1981), 「中國古代服飾研究」: 商務印書館 香港分館.
21. 王宇清(1966), 「冕服服章之研究」(臺北國立歷史博物館), 歷史文物叢書 第一輯.
22. _____(1967), 「中國服裝史綱」台北:中華大典編纂印會.

42) 「高宗實錄」, 高宗元年 1月 18日條에 보면, 甲午年(순조국장)과 己酉年(헌종국장)에 이어 철종국장때에도 평상시 착용하던 면복을 服玩으로 썼다는 기록이 있다.

43) 늦어도 世宗代에는, 이미 冕服이 국내에서 제작되고 있었다. 「文宗實錄」, 文宗即位年 3月 丁未條 참조.

23. 柳喜卿(1972), 「冕服에 관한 研究」, 梨花女子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請求論文.
24. _____(1983), 「韓國服飾史研究」(第三版), 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25. 李覺鍾(昭和二年四月發行), 「純宗實紀附名臣史傳」, 京城: 新民主藏版.
26. 李京子(1983), 「韓國服飾史論」, 서울: 一志社.
27. 李王職 禮式課(編), 光武2年(1898), 「禮服」, 장서각 소장.
28. 「增補文獻備考」(1903), 古典刊行會(譯), 서울: 東國文化社.
29. 金用淑(1963), “궁중件記의 研究”, 「郷土서울」, No. 18, 서울시.
30. 宣祖國葬都監儀軌 규장각문서번호(14861) 作成年代 1608年
31. 昭顯世子禮葬都監儀軌 (13918) 1645年
32. 仁祖國葬都監都廳儀軌 (13521) 1649年
33. 孝宗國葬都監儀軌 (13527) 1659年
34. 孝宗寧陵遷陵都監儀軌 (13532) 1673年
35. 顯宗國葬都監都廳儀軌 (13539) 1674~75年
36. 肅宗國葬都監儀軌 (13548) 1720年
37. 景宗國葬都監儀軌 (13566) 1724年
38. 孝章世子禮葬都監儀軌 (14875) 1728年
39. 英祖國葬都監儀軌 (13581) 1776年
40. 英祖國葬都監儀軌 (13582) 1776年
41. 正祖國葬都監儀軌 (13636) 1800年
42. 純祖國葬都監儀軌 (13671) 1834年
43. 文祖(孝明世子)緩陵遷奉都監都廳儀軌(13762) 1846年
44. 憲宗國葬都監儀軌 (13784) 1849年
45. 文祖(翼宗)緩陵遷奉都監儀軌 (13769) 1855年
46. 純祖仁陵遷奉都監儀軌 (13705) 1856年
47. 哲宗國葬都監儀軌 (13843) 1864年

Abstract

The Change of Ceremonial Robe of the King (Myun Bok) in the late Chosun Pynasty

Kim, Myoung-sook

Myun Bok originated in China was introduced into Korea in ancient times. Some evidences show that it had settled down as our own official robe already under Koryō Dynasty. And Koryō made her own regulations on Myun Bok.

Kook Cho O Rye Eui(國朝五禮儀) of Chosōn Dynasty has comparatively detailed explanations on the way of cutting and shapes and materials. And the regulations are modeled after those of Ming China.

But it has been impossible to know whether the regulations of Kook Cho O Rye Eui were strictly kept or not, because we have not enough remains through which to see it. And then we got very useful materials, Eui kue(儀軌), which are well known but have not been used in studying the history of costumes. Every Kook Chang Do Gam Eui Gue(國葬都監儀軌) have the provision of the so-called Pok Wan(服玩) set which includes the imitations or the full set of Myun Bok. And the provisions show us the illustrations colored in detail which help us understand the real shapes and the transformations of Myun Bok.

After surveying the Pok wan provisions, author arrived at conclusions as follow;

- 1) Myun Boks are not always made in the same shape and colors.
- 2) The Provisions of Kook Cho O Rye Eui were not always kept strictly due to the lack of detailed directions.